

‘건강주치의제’ 공모 연기…시범사업 추진 북구 ‘차질’

복지부, 당초 이달서 ‘1분기 내’ 변경

구 계획 수정 불가피…7월에나 시행

지난해 11월 출범 전담조직도 ‘주춤’

구 “유관기관 연계 등 사전 준비 최선”

광주 북구가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체제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공모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 채비에 돌입하려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에나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전해 들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가 올해 1분기 내로 최종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지속 관리하는 것을 시범사업의 골자로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제 모델을 정립하는 것 역시 목표인데, 북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기도 한 주치의제 필요성에 일찍이 공감하며 ‘체제 운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북구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7~8월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북구부 공모로 변경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그 사이 북구는 시범사업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종간 보고회 등을 거치며 공론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열어 ‘1차의료 지원센터’를 통한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란 실행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학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환자에 대해 최적의 진단을 내리고 함께 치료하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의료기관 대다수가 1인 진료 형태이다 보니 이를 직접 운영하기엔 한계가 커 행정 기관에 지원센터를 두고 ▲인

력 지원·연계 ▲의뢰·회송 조정 ▲정보 시스템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다학제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게 용역 결과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북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건강주치의 추진단’을 새롭게 꾸렸고 추진에 손을 보탰다.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 위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추진단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편성됐고 정책팀과 서비스팀으로 나뉜다.

정책팀은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참여를, 서비스팀은 협의체 운영과 인력 교육,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추진단은 북구부가 사업에 참여할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수기’를 확정하면, 참여 의료진 모집 등에도 나설 예정이었다.

현재 북구부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기’ 도입을 확정했지만, 공모 후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오는 7월로 정하면서 북구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수혜자 모집도 늦추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정확한 공모 내용이 확정돼야 사업 추진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데,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절차가 조금씩 밀린 건 사실”이라며 “앞서 의료 기관을 상대로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처럼 사전 준비와 유관 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단순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지정 안 돼”

광주지법, 비해당 취소 청구서 판시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당시 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6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해 신병 교육 훈련을 받던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수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격리된 곳에서 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면서 A씨는 골절과 상처 피사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부상을 이유로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광주지방 보훈청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 심판 청구도 냈지만, 기각 재결을 받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내려진 불인정 결정의 사유는 A씨의 부상 이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임은 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식 재판에서 A씨는 군사 훈련을 위해 군용 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군 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내린 지침은 건강 상태 후 교육 훈련 참여 여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A씨의 부대 복귀는 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재영 기자

4대 보험료 수천만원 미납 건설회사 대표 체포

광주 남부경찰, 구속영장 검토

10여년 동안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불잡혔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건설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10여년간 직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6천800만원을 공제하고 선실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의 사용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조류독감 막아라!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대교 인근 영산 강 철사도래지 주변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1월 한 달간 철사도래지 주변과 가금농장 등에 대해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김애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